

청소년기의 비행친구 선택과 영향에 대한 종단연구 : 지속효과와 최신효과

이은주*

초 록

본 연구는 청소년기 비행친구 교제의 종단적 패턴에 따라 비행수준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 보는데 목적이 있었다. 특히 청소년 비행에 대한 비행친구 교제의 지속효과 및 최신효과를 비교해 보고자 하였다. 한국청소년패널조사의 중2에서 고2까지 4년 종단자료를 분석한 결과, 비행친구와 교제를 시작한 모든 청소년들이 교제를 지속하는 것은 아니며, 비행친구를 사귀는 모든 청소년이 그들의 영향을 받아 비행을 시작하는 것도 아니었다. 스스로를 문제아라고 생각할수록, 비행에 대해 수용적일수록, 부모감독이 적을수록, 부모의 공격적 행동에 많이 노출될수록 비행친구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았다. 그러나 부모의 공격적 행동수준이 낮고 비행에 대해 부정적 태도를 가진 청소년들은 비행친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영향을 받지 않았다. 비행친구와의 교제가 비행에 미치는 효과에 있어서 과거에 비행친구와 교제한 지속 기간보다는 현재 비행친구가 있는지가 더욱 중요하며, 비행친구의 지속효과는 현재 비행친구가 있을 때에 한해서 나타났다. 연구의 의의 및 후속연구에 대한 제언이 논의되었다.

주제어 : 비행친구, 청소년 비행, 지속효과, 최신효과

* 한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I . 문제제기

청소년 비행에 대한 많은 선행연구들이 청소년 비행과 관련 있는 가장 중요한 요인의 하나로 비행친구와의 접촉을 꼽는다(Berndt & Keefe, 1995; Fergusson & Horwood, 1999; Keenan, Loeber, Zhang, Stouthamer-Loeber, & Van Kammen, 1995). 특히 초기 청소년기에 부모감독 없이 친구와 보내는 시간이 늘어나게 되고 또래가 가장 중요한 준거집단이 되면서(Brown, Mounts, Lamborn, & Steinberg, 1993),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대한 친구의 영향력은 증가하게 된다. 본 연구는 청소년 비행에 대한 비행친구의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다소 진부해보일 수도 있는 연구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비행친구의 영향에 대한 새로운 연구가 필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그동안 비행친구의 영향(peer influence effect)은 과대평가된 경향이 있다(Bauman & Ennett, 1996; Urberg, Degirmencioglu, & Pilgrim, 1997). 청소년들은 자신과 비슷한 이를 친구로 선택하는 경향이 있는 바, 비행청소년이 비행청소년을 친구로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비행과 비행친구의 유의미한 상관을 바탕으로 비행친구가 청소년 비행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론을 내릴 경우 비행친구 선택의 효과(peer selection effect)를 통제하지 않은 오류를 범하게 된다(Berndt & Keefe, 1995). 왜냐하면 비행친구의 선택과정에 이미 개인의 비행수준이 반영되어 있다면 그만큼 비행친구의 영향을 과대평가하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비행친구의 영향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비행친구를 선택한 후에 비행수준에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 알아보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 비행친구의 선택과 영향의 과정을 구분한 2단계 모델이 필요하다(Urberg, Luo, Pilgrim, & Degirmencioglu, 2003).

둘째, 비행친구를 사귀다고 모두 비행청소년이 되는 것은 아니다. 즉 비행친구의 영향을 받는 정도에 차이가 있다. 비행친구의 영향에 수용적인 이는 누구인가? 일부 선행연구들이 비행과 비행친구의 관계를 조절하는 변인들을 제시하고 있지만, 비행친구의 선택효과를 통제한 후에 비행친구의 영향력은 매우 낮다는 연구결과(예; Ennett & Bauman, 1994; Urberg et al., 1997)를 고려해 볼 때 비행친구의 영향을 받는데 기여하는 변인에 대한 재분석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비행과 비행친구의 관계를 조절하는 변인이 비행친구의 선택효과를 통제한 후에도 같은 정도와 같은 방향으로 비행

친구의 영향을 조절하는지는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셋째, 한번 비행친구를 사귀었다고 그 친구와 계속 교제하는 것은 아니다. 비행친구와의 교제를 지속하고 단절하는 등의 종단적 교제 패턴은 이후의 비행에 미치는 영향에서 분명한 차이가 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미지의 분야이다. 비행친구 교제의 종단적 패턴에 따라 이후의 비행수준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봄으로써 비행친구 교제의 최신효과와 지속효과를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연구의 필요성에 기초하여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비행친구와의 교제 및 비행경험의 종단적 양상은 어떠한가?
2. 누가 비행친구를 선택하는가?
3. 누가 비행친구의 영향을 받는가?
4. 비행에 대한 비행친구 교제의 지속효과와 최신효과는 어떠한가?

II. 선행연구의 고찰

1. 비행친구의 선택과 비행친구의 영향

친구의 선택은 우연이나 무작위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청소년들은 친구들과 행동, 태도, 인성에서 매우 비슷하며(Urberg et al., 1997), 이러한 유사성은 이들이 친구가 되기 전에도 존재한다는 점에서 유사성은 교제의 결과라기보다는 교제의 원인이 되는, 즉 친구가 되게 만드는 요인임을 시사한다(Brendgen, Vitaro, & Bukowski, 1998). 만약 비행청소년이 되는 과정이 비행친구의 선택보다 정말 일찍 시작된다면, 비행청소년을 친구로 선택하는 자는 일반청소년을 친구로 선택하는 자와 친구 선택 이전부터 이미 다를 것이다. 한편 일반 청소년들이 우연히 비행친구를 사귀게 될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에 비행을 해본 적이 없는 일반 청소년들은 의도하지 않았을지라도 비행을 하도록 친구의 영향을 받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즉 순진한 청소년이 나쁜 친구들에게 빠져서 그 결과로 나쁜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것으로, 친구의 영향에 대한 일반적 견해에 해당된다. 이 경우 비행청소년을 친구로 선택하는 자와 일반청소년을 친구로 선택

하는 자를 사전에 예측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본 연구의 첫 번째 목적은 비행친구를 선택한 청소년은 비행친구를 선택하지 않은 청소년과 친구선택의 단계에서부터 다른지, 또한 어떻게 다른지 알아봄으로써 누가 비행친구를 선택하는지 알아보는 데 있다.

사회적 상호작용 모델(Patterson, DeBaryshe, & Ramsey, 1989)에 의하면 부모의 부적응적 양육태도와 청소년 자신의 비행적 특성은 비행친구와 교제하도록 이끄는 주요 요인이다. 부모-자녀간 갈등, 부모의 감독 부재, 부모에 대한 애착 부족 등은 비행친구와 만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비행친구와의 교제를 촉진하였으며(Dishion, Patterson, Stoolmiller, & Skinner, 1991; Warr, 1993), 심지어 개인적 특성 및 또래지위를 통제한 후에도 유의미한 변인이었다(Fergusson & Horwood, 1999). 특히 가정에서의 언어폭력과 신체적 학대, 성적 학대, 방임과 무관심은 자녀의 부적응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하다는 점에서 가정의 기능적 결손을 나타내는 매우 중요한 변인으로 보인다(권영옥·이정덕, 1999; 이명숙·김영미, 1993).

또한 청소년 자신의 비행적 특성(비행에 대한 태도, 공격성, 분노, 비행관련 자아개념 등)은 비행친구와의 교제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데, 이는 친구의 선택이 태도나 행동의 유사성으로 인한 상호 호감에 상당부분 기초하기 때문이다(Cairins, Cairns, Neckerman, Gest, & Gariepy, 1988; Snyder, Dishion, & Patterson, 1986). 예컨대 비행친구를 선택한 청소년들은 비행친구와 전혀 어울리지 않은 청소년들에 비해 비행에 대해 더 우호적 태도를 보였으며(Brednegen, Vitaro, & Bukowski, 2000), 특히 부모의 감독을 통제한 후에도 두 집단을 유의미하게 구분하였다는 점에서 비행에 대한 태도가 비행친구의 선택의 지표로서 중요함을 보여주었다.

한편 Thornberry(1987)는 사회유대의 결핍이 비행친구와의 교제를 통해 청소년 비행에 영향을 준다는 견해의 모델을 제시한 바 있다. 사회유대의 결핍을 의미하는 변인으로 부모에 대한 애착(부모-자녀간 정서적 관계, 부모와의 의사소통, 부모감독이나 훈육, 부모-자녀간 갈등), 학교생활에 전념(학교에서의 성공, 교육의 중요성에 지각, 교사에 대한 애착, 학교활동에 참여), 및 전통적 가치에 대한 믿음(만족의 지연, 교육, 경제적 성공 등)이 포함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가족의 기능적 결손, 사회유대의 결핍, 개인의 심리적 특성에 따라 비행친구의 선택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선행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가족의 기능적 결손 및 사회유대의 부족을 나타내는 변인으로 부모의 감

독, 부모와의 갈등, 부모의 공격적 행동, 부모에 대한 애착, 학업 진념, 비행에 대한 태도를, 개인의 비행관련 심리적 특성 변인으로 비행관련 자아개념, 분노감, 학업 스트레스를 선정하였다. 비행친구의 선택이 이후 비행수준을 예측하는데 강력한 예언변인이라는 점에서 비행친구의 선택에 관여하는 변인을 파악하는 것은 중요한 연구과제로 판단된다.

한편 비행친구를 사귀고, 그래서 친구의 영향을 받을 위험성이 높아졌다고 해서 비행친구와 어울리는 모든 청소년들이 비행을 저지르는 것은 아니다(Vitaro et al., 1997). 비행친구의 선택과 영향을 구분한 선행연구에 의하면 친구선택의 효과를 통제했을 때 친구의 영향은 매우 낮은 수준에 불과했다(Berndt & Keefe, 1995; Urberg et al., 1997). 또한 친구의 선택과 영향의 효과를 비교한 연구에서 친구의 영향보다 친구 선택 효과가 더 컸다(Ennett & Bauman, 1994). 비행친구의 영향력이 크지 않았다는 연구결과는 아마도 청소년들이 비행친구의 영향을 받는 정도가 다르기 때문일 가능성이 있다. 이것은 비행친구를 사귀면서 친구의 행동과 자신의 행동이 일치되도록 하는 데 개인차가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비행친구의 영향을 받는 청소년과 비행친구의 영향에 저항하는 청소년을 구분하는 요인은 무엇인가?

일부 선행연구들이 비행친구와 비행의 관계를 조절하는 변인을 제시하고 있다. 먼저 Agnew(1991)에 의하면 비행친구가 주변에 있는 것 자체가 비행을 유발하기보다는 비행 친구와의 정서적 애착, 함께 보내는 시간의 정도에 따라 비행친구의 영향은 다르다. 또한 비행에 대해 긍정적 태도를 가질수록, 자아존중감과 전통적 가치의 수용 정도 등이 낮을수록 비행친구의 행동을 수용함으로써 그들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Petratis, Flay, & Miller, 1995). 한편 Keenan 등(1995)은 부모의 감독, 훈육, 애착관계가 이후의 심각한 비행을 예언하는데 있어 비행친구와의 상호작용 효과는 없었다고 보고한 바 있다. Vitaro, Bredngen, 및 Tremblay (2000)의 연구에서도 비행에 대한 부모감독과 비행친구의 주효과가 유의미하였을 뿐 이들의 상호작용 효과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위의 연구들은 비행친구와 비행의 관계를 조절하는 변인을 밝히는 과정에서 비행친구의 선택 효과를 통제하지 않았다는 제한점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비행친구가 청소년의 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친구선택의 효과를 적절히 통제한 후 비행친구의 영향을 받는 정도의 개인차를 설명할 수 있는 특성이 무엇인지 알아보

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앞에서 제시한 비행친구 선택과 관련된 변인들(가족의 기능적 결손, 사회유대의 결핍, 개인의 심리적 특성)이 비행친구의 영향을 받는 과정에도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긍정적 가족 기능과 높은 사회유대감, 심리적·정서적 건강은 비행친구를 선택하지 않도록 기여할 뿐만 아니라 비행친구를 사귀더라도 그들의 비행을 따라하지 않도록 보호함으로써 비행친구와 비행의 관계를 조절할 것으로 예상된다.

2. 비행친구 교제의 지속과 단절: 지속효과와 최신효과

한번 비행친구를 사귀었다고 해서 그 친구와의 교제가 항상 지속되는 것은 아니다. Cairns, Xie, 및 Leung (1998)에 의하면 초기 청소년기의 또래관계에 변화가 많았다. Warr(1993)의 연구에서 비행친구와 어울린 약 67%의 청소년이 이후 몇 년 동안 교제를 유지한 반면, Thornberry, Krohn, Lizotte, 및 Chard-Wierschem (1993)에서 비행친구와 1년 이상 교제한 청소년은 45%를 넘지 않았다. 한국청소년패널조사의 중학생 1, 2차년도 자료에 대한 예비분석에서도 1차년도에 비행친구가 있었지만 2차년도에는 더 이상 비행친구와 교제하지 않는 청소년이 47%에 달했다. 비록 연구결과들이 일관적인 비율을 제시하는 것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비행친구와의 교제의 양상이 종단적으로 변화하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비행친구와의 교제 양상이 다양하다면 교제의 종단적 양상에 따라 이후의 비행 수준에 차이가 있지 않을까?

Warr(1993)에 의하면 비행친구와의 교제가 이후의 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데는 두 가지 요인이 작용한다. 첫째는 지속효과(duration effect)로서 비행친구에 노출된 기간이 길수록 즉 비행친구와의 교제기간이 길수록 비행수준이 높다는 것이다. 둘째는 최신효과(recency effect)로서 비록 비행친구와 교제기간이 짧더라도 최근에 교제하고 있다면 비행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이다. 그런데 오랫동안 비행친구와 교제했어도 최근에 비행친구와 더 이상 교제하지 않은 경우 비행수준은 어떠할까? 이들의 비행수준은 최근에 비로소 비행친구와 교제하기 시작한 청소년의 비행수준보다 높을까? 이러한 질문은 비행친구의 최신효과와 지속효과 중 청소년 비행에 보다 강력한 효과는 무엇인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다.

비행친구를 사귀 기간에 따라 이후의 비행수준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봄으로써 비행친구의 지속효과를 검증할 수 있다. 비행친구와 교제한 기간이 길수록 비행수준이 높다면 비행친구의 지속효과가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런데 만약 개인의 비행수준이 주로 비행친구의 최신효과에 달려있다면 지속적으로 비행친구와 어울린 집단과 최근에 비행친구를 사귀 집단간에 비행수준의 차이가 없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비행친구와의 단기종단적 교제 패턴에 따라 비행수준에 대한 지속효과 및 최신효과가 어떠한지 알아보고자 한다. 만약 최신효과가 검증된다면 비록 이전의 비행친구와의 오랜 기간 교제에도 불구하고 비행친구와의 단절을 통해 청소년 비행의 근절에 매우 효과적인 개입을 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III. 연구 방법

1. 연구자료

본 연구를 위해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실시한 한국청소년패널조사의 중2 패널 자료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한국청소년패널조사는 2003년도에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의 중학교 2학년 학생을 모집단으로 하여 층화 다단계 집락표집(stratified multi-stage cluster sampling)을 통하여 3,449명 (남: 1,725명, 여: 1,724명)을 수집하였다. 2차년도에 3,211명, 3차년도에 3,123명, 4차년도에 3,121명이 조사에 응하여서 비교적 높은 표본 유지율을 보여주었다. 본 연구에서는 비행친구 교제의 종단적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1차년도(2003년)부터 4차년도(2006년)까지의 자료를 모두 사용하였다.

2. 연구 변인과 자료분석 방법

비행의 유형에 따라 친구의 영향에 민감한 정도의 차이가 있으므로(Brendgen, Vitaro, & Bukowski, 2000), 본 연구에서는 비행친구 및 비행경험의 측정을 위해 범죄행동 문항에 한정하였으며, 담배피우기, 술 마시기, 무단결석 등과 같은 지위비행은 분석에서 제

외하였다. 먼저 비행친구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지난 1년 동안 다른 사람을 심하게 때리기, 남의 돈이나 물건을 뺏기(빼앗기), 남의 돈이나 물건을 훔치기를 한 친구가 있는지의 항목을 사용하여 합산하였다. 둘째, 응답자의 비행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다른 사람을 심하게 때리기, 패싸움, 남의 돈이나 물건을 뺏기(빼앗기), 남의 돈이나 물건을 훔치기, 남을 협박하기, 성폭행이나 성희롱하기 등의 6문항이 포함되었다. 각각 지난 1년 동안 경험의 유무 및 경험 빈도를 질문하였다. 집단을 구분하기 위해서 비행 경험의 유, 무로 이원분류하였고, 비행의 정도를 알아보기 위한 경우 각 문항별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경험빈도를 표준점수로 변환한 후 이들의 평균을 사용하였다.

다음으로 비행친구의 선택과 영향 과정에 관여하는 변인으로 부모에 대한 애착, 부모와의 갈등, 부모감독, 부모의 공격적 행동, 학업에 전념한 정도, 학업 스트레스, 비행에 대한 태도, 비행 자아, 분노감 등 9개 변인이 선정되었다. 전혀 그렇지 않다(1)에서 매우 그렇다(5)의 Likert식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신뢰도는 $\alpha = .57$ 에서 $\alpha = .92$ 사이에 분포하였다. 구체적 측정 문항의 내용 및 신뢰도 계수는 〈표 1〉에 제시하였다.

각 연구문제별 자료처리 방법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먼저 비행친구와의 교제 및 비행경험의 종단적 양상을 알아보기 위해 각 측정시기마다 비행친구의 유무(2)×비행경험의 유무(2)에 따라 일반집단, 친구집단, 단독비행집단, 및 친구/비행집단으로 구분하였다. 비행경험 및 비행친구가 모두 없다고 보고한 청소년은 일반집단으로, 비행경험은 없지만 비행친구는 있는 청소년은 친구집단으로, 비행친구는 없지만 비행경험은 있는 경우 단독비행집단으로, 그리고 비행친구와 비행경험이 모두 있는 경우 친구/비행집단으로 구분하였다. X^2 검증을 실시하여 다음 측정시기에 집단 소속의 변화에 각 집단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았다.

비행친구를 선택하는 집단 및 비행친구의 영향을 받는 집단을 구분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확인하기 위해 로지스틱 회귀분석(logistic regression)을 실시하였다. 로지스틱 회귀분석은 독립변수가 양적 변수이며 종속변수가 이변량을 가진 비선형의 회귀분석을 말하는 것으로, 선형회귀모형과 비슷하나 예측변수군의 값을 기준으로 결정되는 특성이나 결과가 있는지 여부를 예측하려 할 때 유용하다. 특히 본 연구에서 비행친구 및 비행경험을 잔차플롯한 결과 정규분포를 따르지 못해서 이를 이분형으로 변환시켜 로지스틱 회귀분석모형을 사용하였다.

<표 1> 연구 변인별 문항 및 신뢰도 계수

영역	변인 (α 계수)	문항 수와 문항 번호	문항 내용
종속 변인	비행경험	6 문항 (37: 6, 8, 9, 11, 12, 13)	- 다른 사람을 심하게 때리기, 패싸움, 남의 돈이나 물건을 뺏기(빼앗기), 남의 돈이나 물건을 훔치기, 남을 협박하기, 성폭행이나 성희롱하기
	비행친구	3 문항 (6-6: 4, 5, 6)	- 지난 1년 동안 다음의 행동을 한 친구: 다른 사람을 심하게 때리기, 남의 돈이나 물건을 뺏기(빼앗기), 남의 돈이나 물건을 훔치기
독립 변인	비행에 대한 태도 (.57)	3 문항 (34: 4, 48-3:1,2)	- 나는 남을 놀리거나 괴롭히는 일이 재미있다. - 아주 약이 오르면 다른 사람을 때릴 수도 있다.
	비행자아 (.92)	4 문항 (48: 7, 8, 9, 10)	- 나는 나 자신이 비행청소년이라고 생각한다. - 나는 나 자신이 문제아라고 생각한다.
	학업스트레스 (.84)	4 문항 (49: 5, 6, 7, 8)	- 학교성적이 좋지 않아서 스트레스를 받는다. - 공부가 지겨워서 스트레스를 받는다.
	학업전념 (.85)	8 문항 (19: 1~8)	- 지난 1년간 학교수업을 얼마나 열심히 했는가? (국어, 영어, 수학 등 8개 과목에 대해 측정)
	분노감 (.74)	3 문항 (8-3: 4, 5, 6)	- 때때로 남을 때리고 싶은 마음을 누를 수 없다 - 물건을 집어던지고 싶은 충동이 생긴다.
	부모와의 갈등 (.86)	4 문항 (49: 1, 2, 3, 4)	- 부모님과 의견충돌이 있어서 스트레스를 받는다. - 부모님과 대화가 안통해서 스트레스를 받는다.
	부모 애착 (.88)	6 문항 (33: 1, 2, 3, 4, 5, 6)	- 부모님은 늘 사랑과 애정을 보이신다. - 부모님과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려고 노력한다.
	부모의 감독 (.88)	4 문항 (33: 7, 8, 9, 10)	- 내가 외출했을 때 부모님은 내가 어디에 있는지 대부분 알고 계신다.
	부모의 공격적 행동 (.80)	4 문항 (33: 12, 13, 14, 15)	- 부모님이 서로에게 욕설을 한 것을 본 적이 많다. - 부모님으로부터 심하게 맞은 적이 많이 있다.

Note. ()의 α 계수는 3차년도 자료의 신뢰도 계수임.

마지막으로 비행친구의 지속효과와 최신효과를 비교 검증하기 위해 비행친구와 교제의 종단적 변화의 양상에 따라 8 집단으로 구분하고 일원변량분석을 실시하여 집단별 비행수준의 차이를 알아보았다.

IV. 연구결과

본 연구의 연구문제를 분석하기에 앞서 비행친구 및 비행경험의 유무에 따라 구분된 네 집단별 분포가 어떠한지 알아보았다. 1차년도(T1)부터 4차년도(T4)까지 집단별 분포는 <표 2>에 제시된 바와 같다. 82.8%의 청소년들이 일반집단으로 구분되었고, 5.1%는 친구/비행집단으로 구분되었다. 그런데 친구집단과 단독비행집단에 각각 7.3%와 4.8%의 청소년들이 속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비행친구를 사귀는 모든 청소년이 비행을 하는 것은 아니며 또한 모든 비행청소년들이 친구들과 함께 비행을 하는 것도 아님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다음으로 이전의 비행경험 및 비행친구를 통제한 후 비행경험 및 비행친구의 선택의 경향이 어떠한지 알아보기 위해 일반집단의 청소년들만을 대상으로 다음 측정시기에 비행친구 및 비행경험의 유무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알아보았다. 예컨대 T1, T2, 및 T3에서 각각 일반집단에 속한 이들이 다음 측정시기 즉 T2, T3, 및 T4에서 집단 분포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살펴보았다. <표 2>에 제시된 바와 같이 1년 전과 마찬가지로 여전히 일반집단으로 구분된 청소년이 91.7%를 차지하였다. 그리고 비행친구 없이 비행을 시작한 청소년들(단독비행집단) 및 비행친구와 함께 비행을 시작한 청소년들(친구/비행집단)이 각각 1.7%와 1.4%에 불과한 반면, 아직 비행경험은 없지만 비행친구와 교제를 시작한 청소년들(친구집단)은 5.2%에 달했다. 따라서 비행의 시작보다는 비행친구와의 교제가 먼저 이루어지는 경향이 높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초기 비행자들 중에서 비행친구 없이 비행을 시작한 청소년들(125명; 55.6%)이 비행친구와 함께 비행을 시작한 청소년들(100명; 44.4%)에 비해 오히려 다소 많았다는 결과는 비행경험이 항상 비행친구를 동반하는 것은 아님을 시사한다.

1. 비행친구 교제 및 비행경험의 종단적 양상은 어떠한가?

비행친구와 교제를 시작한 모든 청소년들이 그들과의 교제를 지속하는 것은 아니며, 또한 비행을 시작한 청소년들 모두가 비행을 지속하는 것도 아닐 것이다.

<표 2> 비행경험 및 비행친구의 유무에 따른 집단별 분포: 빈도(%)

	T1	T2	T3	T4	평균빈도(%)
일반집단	2,462 (72.4)	2,605 (82.2) 2,037 (89.7)	2,717 (87.4) 2,254 (91.7)	2,811 (90.2) 2,441 (93.5)	82.8 91.7
친구집단	288 (8.5)	271 (8.6) 146 (6.5)	212 (6.8) 128 (5.2)	164 (5.3) 108 (4.1)	7.3 5.2
단독비행 집단	327 (9.6)	125 (3.9) 43 (1.9)	97 (3.1) 49 (2.0)	63 (2.0) 33 (1.3)	4.8 1.7
친구/비행 집단	322 (9.5)	168 (5.3) 44 (1.9)	81 (2.6) 27 (1.1)	80 (2.6) 29 (1.1)	5.1 1.4
합	3,399 (100)	3,169 (100) 2,270 (100)	3,107 (100) 2,458 (100)	3,118 (100) 2,611 (100)	100 100

Note. 각 집단별로 두 번째 줄에 제시한 집단별 빈도는 이전 측정시기에 일반집단에 속한 청소년들만을 대상으로 구분한 결과임(예컨대 T3의 집단 구분은 T2에서 일반집단에 속한 청소년들만을 대상으로 한 것임).

이러한 경향을 알아보기 위해 비행경험 및 비행친구의 유무에 따른 집단구분이 종단적으로 어떻게 변화하는지 1차년도에서 3차년도까지 (Wave 1), 그리고 2차년도에서 4차년도(Wave 2)에 걸친 변화의 양상을 3단계로 살펴보았다. 비행친구의 선택과 영향을 구분하기 위해 첫 측정시기(즉 Wave 1의 경우 T1, 그리고 Wave 2의 경우 T2)에서 비행친구 및 비행경험이 모두 없는 일반집단의 청소년들만을 대상으로 하여 2단계에서 비행경험 및 비행친구의 유무에 따라 네 집단으로 구분한 후, 1년 후인 3단계에서 다시 각 집단별로 비행친구와 비행경험의 유무에 따라 재구분하였다. 집단별 빈도는 <표 3>에 제시한 바와 같다. 집단별 분포에 대한 X^2 검증 결과, 네 집단별로 비행친구와 비행경험의 변화 패턴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Wave 1에 대한 $X^2(df=9, N=2,144)=276.90, p<.001$; Wave 2에 대한 $X^2(df=9, N=2,374)=207.84, p<.001$.

먼저 4개 집단별로 1년 후의 비행경험 및 비행친구의 단절 여부를 알아본 결과, 각 Wave의 2단계(T2와 T3)에서 일반집단에 속한 청소년들의 94.2%는 1년 후에도 여전히 일반집단에 속하여서 비행경험 및 비행친구와 무관함이 지속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비행경험은 없지만 비행친구가 생긴 친구집단 청소년들의 80.7%는 3단계에서 일반집단으로 구분됨으로써 비행친구와 단절했음을 보여주었다. 반면 비행친구는 없지만 비행경험은 있는 단독비행집단의 73.3%와 비행친구와 비행경험이 모두 있는 친구/비행집단 청소년의 61.5%가 1년 후에 일반집단으로 구분되었다.

다음으로 네 집단별로 1년 후의 비행경험 여부를 알아본 결과 단독비행집단의

18.9%가, 그리고 친구/비행집단의 30.8%가 1년 후(3단계)에도 여전히 비행을 하고 있음을 보고하였다. 반면 친구집단의 청소년들 중에서 1년 후에 비행경험을 보고한 청소년은 4.4%에 불과하였다. 즉 비행친구와 함께 비행을 한 경우 비행친구 없이 비행을 시작한 경우에 비해 비행을 단절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비행친구와 교체하는 청소년들이 실제로 비행친구의 영향을 받아 비행을 하게 되는 경우는 매우 제한적임을 알 수 있다.

<표 3> 비행경험 및 비행친구의 유무별 집단의 종단적 변화: 빈도(%)

1단계 (T1, T2)	2단계 (T2, T3)		3단계 (T3, T4)			
			일반집단	친구집단	단독비행	친구/비행
일반 집단	일반집단 (91.0%)	T2→T3	1,796 (93.1)	92 (4.8)	28 (1.5)	13 (0.7)
		T3→T4	2,073 (95.1)	70 (3.2)	23 (1.1)	14 (0.6)
		합	3,869 (94.2)	162 (3.9)	51 (1.2)	27 (0.7)
	친구집단 (5.6%)	T2→T3	111 (84.1)	17 (12.9)	3 (2.3)	1 (0.8)
		T3→T4	94 (77.0)	21 (17.2)	3 (2.5)	4 (3.3)
		합	205 (80.7)	38 (15.0)	6 (2.4)	5 (2.0)
	단독비행 (2.0%)	T2→T3	29 (69.0)	4 (9.5)	7 (16.7)	2 (4.8)
		T3→T4	37 (77.1)	3 (6.3)	5 (10.4)	3 (6.3)
		합	66 (73.3)	7 (7.8)	12 (13.3)	5 (5.6)
	친구/비행 (1.4%)	T2→T3	25 (61.0)	2 (4.9)	4 (9.8)	10 (24.4)
		T3→T4	15 (62.5)	3 (12.5)	1 (4.2)	5 (20.8)
		합	40 (61.5)	5 (7.7)	5 (7.7)	15 (23.1)

Note. 이전의 비행친구와 비행경험을 통제하기 위해 2단계의 집단구분은 1단계에서 비행을 하지 않고 비행친구도 사건 적이 없는 청소년들(일반집단)만을 대상으로 함.

종합해 보면 비행경험 없이 비행친구와 교제를 시작한 청소년들의 대부분(80.7%)은 1년 후에 더 이상 그들과 교체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비행경험과 비행친구가 모두 있다고 보고한 청소년들 중에서 1년 후에도 비행친구와의 교제를 지속하고 있는 청소년은 30.8%에 불과하였다. 그리고 비행친구와 교제를 시작한 청소년들의 4.4%만이 1년 이내에 비행을 시작했다. 따라서 한번 비행친구가 생겼다고 해서 이들과 지속적으로 교체하는 것도 아니며, 비행친구를 사귀는 모든 청소년들이 그들의 영향을 받아 비행을 시작하게 되는 것도 아님을 확인하였다.

2. 누가 비행친구를 선택하는가?

누가 비행친구를 선택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먼저 T1, T2, 및 T3의 일반집단을 대상으로 각기 다음 측정시기(T2, T3, T4)에 비행친구가 있다고 보고한 청소년 382명을 비행친구 선택집단으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지난 4년간 비행친구가 지속적으로 없다고 보고한 청소년 1,933명을 비행친구 비선택집단으로 구분하였다(표2, 표5 참조). 비행친구를 선택한 청소년들과 그렇지 않은 청소년들은 어떻게 다른지 알아보기 위해 본 연구에서 선정한 9개의 독립변인을 동시에 투입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였다. 연구결과, 두 집단을 판별하는데 유의한 영향력을 보인 변인은 비행에 대한 태도, 비행자아, 부모의 감독, 및 부모의 공격적 행동인 것으로 나타났다(all $p < .001$, 표 4 참조). 모델의 적합도가 유의하였으며($p < .001$), 비행친구 선택집단과 비선택집단을 정확히 분류한 정도는 88.0%였다.

비행에 대한 태도, 비행자아, 및 부모의 공격적 행동이 1단위 증가할수록 비행친구를 선택할 가능성은 각각 40%, 39%, 및 24%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부모의 감독이 1단위 증가할수록 비행친구를 선택할 가능성은 29%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비행친구의 선택 및 비행친구의 영향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비행친구의 선택				비행친구의 영향			
	B	S.E.	Wald	Exp(B)	B	S.E.	Wald	Exp(B)
비행에 대한 태도	.34	.09	13.46***	1.40	1.41	.52	7.52**	4.10
비행자아	.33	.10	10.51***	1.39	-.18	.29	.40	.83
분노	.01	.10	.01	1.01	-.10	.33	.08	.91
학업 스트레스	-.02	.11	.02	.98	-.07	.34	.04	.94
학업 전념	-.10	.10	1.11	.91	.58	.33	3.05	1.79
부모와의 갈등	.21	.11	3.56	1.24	.10	.38	.08	1.11
부모 애착	.27	.11	5.49	1.31	.53	.43	1.50	1.70
부모 감독	-.35	.10	11.01***	.71	-.55	.39	1.96	.58
부모 공격적 행동	.22	.09	6.03*	1.24	.93	.38	6.08*	2.54
Concordant			88.0%				96.0%	
-2 Log Likelihood			1554.54				68.29	
Model X^2			88.66***, df=9				21.85**, df=9	
Nagelkerke R^2			.08				.28	

*** $p < .001$, ** $p < .01$, * $p < .05$.

따라서 아직 비행경험은 없을지라도 비행친구를 선택한 청소년들은 그렇지 않은 청소년들에 비해 체계적인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비행친구의 선택은 우연히 또는 무작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시사한다. 또한 비행친구를 선택한 집단의 청소년들이 아직 비행경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문제아라고 인지하는 정도, 즉 비행자아 변인이 비행친구의 선택과 관련된 유의미한 변인이었다는 점은 주목할만하다.

3. 누가 비행친구의 영향을 받는가?

비행친구가 생긴 모든 청소년이 비행을 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즉 그들의 영향을 받아 비행을 시작하는 청소년들이 있는 반면 오히려 그들과의 교제를 단절함으로써 비행친구의 영향을 받지 않는 청소년도 있을 것이다. 비행친구의 영향을 받은 집단과 받지 않은 집단의 구분을 위해 앞서와 같이 Wave 1과 Wave 2의 3년간의 종단적 자료를 사용하였다. 먼저 비행친구의 선택과정에 이전의 비행수준이나 비행친구의 영향을 통제하기 위해 1차년도에 일반집단에 속한 청소년들을 추출하였다. 이들 중에서 2차년도에 친구집단에 속한 청소년들($N=254$)을 추출한 후, 이어서 3차년도에서 비행경험의 유무에 따라 비행친구의 영향을 받은 집단(11명)과 비행친구의 영향을 받지 않은 집단(243명)으로 구분하였다(표 3 참조). 두 집단의 사례수에 현저한 차이가 있는 바, 결과의 해석 및 일반화에 신중해야 하는 제한점이 있다.

두 집단에 대해 앞서와 같은 방법으로 9개 독립변인을 동시에 투입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비행에 대한 태도($p<.01$)와 부모의 공격적 행동($p<.05$)이 두 집단을 판별하는데 유의미한 영향력을 보인 변인이었다(표 4 참조). 모델의 적합도가 유의하였으며($p<.01$), 비행친구의 영향을 받은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을 정확히 분류한 정도는 96.0%였다. 비행에 대한 태도 및 부모의 공격적 행동이 1단위 증가할수록 비행친구의 영향을 받아 비행을 할 가능성은 각각 4.1배 및 2.5배 증가하였다. 즉 부모의 공격적 행동에 많이 노출되고 비행에 대해 수용적 태도를 가진 경우 비행친구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지만, 부모의 공격적 행동 수준이 낮고 비행에 대해 부정적 태도를 가진 청소년들은 비행친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영향을 받지 않음을 의미한다.

4. 비행친구 교제의 지속효과와 최신효과는 어떠한가?

청소년 비행에 대한 비행친구의 영향력은 비행친구 교제의 지속기간이 길수록 그리고 교제가 최근까지 이루어졌을수록 클 것이다. 비행친구의 지속효과 및 최신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T1에서 T4에 걸쳐 비행친구 유무의 변화에 따라 <표 5>에 제시한 바와 같이 8개의 집단으로 구분한 후 집단별 비행수준(T4)의 차이를 알아보았다. 일원변량 분석을 실시한 결과 집단별 비행수준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F(7, 2456)=99.41$, $p<.001$. 사후분석으로 Scheffe 검증을 실시한 결과 G1>G2, G3>G4>G5, G6, G7, G8의 순으로 비행수준에 차이가 있었다.

8개 집단 중에서 4년에 걸쳐 지속적으로 비행친구가 있는 집단(G1)의 비행수준이 가장 높았으며, 특히 비행친구가 있는 기간이 길수록 현재의 비행수준은 높았다(G1>G2, G3>G4). 그러나 비행친구와 교제했더라도 현재 비행친구와 단절된 경우 과거의 비행친구의 지속효과는 현재의 비행수준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G6, G7, G8의 경우 과거 3년에 걸쳐 비행친구의 지속 기간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비행수준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혀 비행친구가 없었던 집단(G5)과도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던 점에 기초해 볼 때 비행친구의 지속효과는 현재도 여전히 비행친구가 있는 청소년에 한해서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표 5> 비행친구 유무의 종단적 변화에 따른 8 집단별 비행수준의 차이

비행친구집단	집단구분의 기준 (T1, T2, T3, T4)	N	평균(Z점수)	표준편차
G1	o o o o	19	3.52 A	4.56
G2	x o o o	18	1.93 B	2.99
G3	x x o o	25	1.57 B	2.81
G4	x x x o	76	.66 C	1.97
G5	x x x x	1,933	-.16 D	.42
G6	o x x x	276	-.09 D	.58
G7	o o x x	88	.07 D	.96
G8	o o o x	29	.11 D	.91
합 계		2,464	-.05	.89

Note. o는 비행친구가 있음을, x는 비행친구가 없음을 의미함. 평균 뒤에 표기된 첨자(A, B, C, D)가 다른 경우 다른 첨자를 가진 두 집단간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의미함. 비행친구 유무의 4년간 변화에 따라 16개 집단구분이 가능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비행친구의 최신효과와 지속효과의 비교에 적합한 8집단으로 제한함.

오랫동안 비행친구가 없었지만 최근에 비행친구가 생긴 청소년들(G3, G4)의 비행 수준이 지속적으로 비행친구가 있었지만 현재 비행친구가 없는 청소년들(G7, G8)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수준이었다. 특히 G8에 비해 G4의 비행 수준이 높다는 결과는 비행 친구의 지속효과보다는 최신효과가 더욱 크다는 점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종합해보면 현재의 비행수준의 차이를 야기하는 요인으로 비행친구를 지속적으로 사귄 정도 보다는 최근에 비행친구가 있는지 여부가 더욱 중요하며, 비행친구의 지속효과는 현재 비행친구가 있을 때에 한해서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청소년기 비행친구 교제의 종단적 양상에 따라 비행수준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는데 목적이 있었다. 특히 비행친구의 선택 및 비행친구의 영향을 받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고, 청소년 비행에 대한 비행친구 교제의 지속효과 및 최신효과를 비교해 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얻은 결과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비행친구도 없고 비행경험도 없는 일반 청소년들의 대부분(약 91.7%)은 1년 후에도 여전히 같은 패턴을 보였지만, 약 8.3%의 청소년들은 변화를 나타냈다. 변화를 보인 청소년들 중에서 약 62.9%는 비행경험은 아직 없지만 비행친구와의 교제를 시작한 반면, 비행친구 없이 혼자 비행을 시작한 청소년이 약 20.6%, 그리고 비행친구와 비행경험이 모두 있다고 보고한 청소년들은 16.5%에 불과했다. 이것은 비행의 시작보다는 비행친구와의 교제가 먼저 이루어지는 경향이 높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비행청소년이 되는 과정은 비행친구의 선택보다 훨씬 이전에 시작될 가능성에 대해 지적인 Leventhal과 Cleary(1980)를 지지하는 것이다. 또한 초기 비행자들 중에서 비행친구 없이 비행을 시작한 청소년들이 비행친구와 함께 비행을 시작한 청소년들에 비해 오히려 다소 많았다는 결과는 적어도 비행경험이 항상 비행친구를 동반하는 것은 아님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많은 선행연구 (예: Reiss, 1988)들이 성인 범 죄와 대조되는 청소년 비행의 특징으로 친구와의 동반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런데 본

연구에서 친구와 함께 동반 비행하는 경우가 단독 비행보다 오히려 낮게 나타난 것은 부분적으로 청소년 비행의 측정에서 지위비행을 제외하고 폭력비행에 한정하였기 때문일 가능성이 있다. 후속 연구에서 비행의 유형에 따라 단독 비행자와 친구동반 비행자가 비행에 이르는 과정이 어떻게 다른지 비교 분석해 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둘째, 비행친구와 교제를 시작한 모든 청소년들이 그들과의 교제를 지속하는 것은 아니었다. 본 연구에서 비행경험 없이 비행친구와 교제를 시작한 청소년들의 대부분(약 83.1%)이, 그리고 비행친구와 함께 비행을 시작한 청소년들의 약 69.2%가 1년 후에 더 이상 그들과 교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비행경험은 아직 없는 상태에서 비행친구와 교제를 시작한 청소년의 약 4.4%만이 1년 이내에 비행을 시작하였다. 따라서 비행친구를 사귀는 모든 청소년이 그들의 영향을 받아 비행을 시작하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비행친구와 교제하는 청소년들이 실제로 비행친구의 영향을 받아 비행을 하게 되는 경우는 극히 소수에 불과함을 알 수 있다. 또한 비행친구 없이 비행을 시작한 청소년들의 81.1%, 그리고 비행친구와 함께 비행을 시작한 청소년들의 69.2%가 1년 후에 더 이상 비행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비행친구와 함께 비행을 한 경우 단독 비행자에 비해 비행을 그만두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결과는 비행친구 및 비행경험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보다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역동적으로 변하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Dishion 등(1991)은 반사회적 행동 및 반사회적 또래와의 접촉에 상당한 지속성이 있음을 주장한 바 있다. 특히 Warr(1993)은 비행친구는 한번 생기면 단절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sticky friends라고 표현하였다. 본 연구에서 비행경험과 비행친구가 없는 청소년들은 다음 해에도 대부분 같은 패턴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지속성이 있다고 할 수 있겠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행경험과 비행친구의 변화가 나타난 일부 청소년들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고자 한다. 왜냐하면 비행친구가 생겼어도 교제를 지속한 경우는 일부에 불과하였을 뿐만 아니라 비행을 시작한 청소년들 중에서 실제로 많은 청소년들이 비행을 중단하였기 때문이다.

셋째, 비행친구 선택집단과 비선택집단을 판별하는데 유의한 영향력을 보인 변인은 비행에 대한 태도, 비행자아, 부모의 감독, 및 부모의 공격적 행동이었다. 즉 비행에 대해 수용적 태도를 가질수록, 스스로를 문제아 또는 비행청소년이라고 생각할수록, 부모의 감독이 적을수록, 부모의 공격적 행동에 많이 노출될수록 비행친구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부모의 부적절한 훈육과 감독이 이후 반사회적 또래와의 접촉을 예측한다고 한 Dishion 등(1991)을 지지하는 것이다. 특히 비행친구를 선택한 집단은 아직 비행경험이 없는 청소년들임에도 불구하고 비행자아 변인이 비행친구의 선택을 예측한 유의미한 변인이었다는 점은 주목할만하다. 자신을 문제아라고 생각하는 경우 비행의 기회를 제공하거나 비행의 모델이 되는 친구를 가까이 할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자기 인식이 실제로 비행친구의 선택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무엇 때문에 비행경험이나 비행친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비행청소년이라고 생각하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본 연구의 결과는 Urberg 등(2003)이 주장한 바와 같이 친구의 선택이 우연히 또는 무작위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보여주는 것이다. 아직 비행경험은 없을지라도 비행친구를 선택한 청소년들은 그렇지 않은 청소년들에 비해 체계적인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모델의 적합도가 유의미함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의 예측변인은 비행친구의 선택 변동비율의 약 8%를 설명하는데 그치는 한계를 나타냈다. 비행친구의 선택이 추후 청소년 비행을 예측하는 강력한 변인이라는 점에서 후속연구를 통해 비행친구의 선택에 개입하는 예측변인을 밝히는 노력이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Vitaro 등(1997)이 주장한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도 비록 비행친구를 사귀고, 그래서 친구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더 많아졌다고 해서 비행친구와 어울리는 모든 청소년들이 비행을 저지르는 것은 아니었다. 비행친구를 사귀면서 비행을 시작하게 된 청소년들이 있는 반면 오히려 그들과의 교제를 단절함으로써 비행친구의 영향을 받지 않은 청소년도 있었다. 비행친구의 영향을 받은 청소년과 그렇지 않은 청소년을 판별하는데 유의미한 영향력을 보인 변인은 비행에 대한 태도와 부모의 공격적 행동이었다. 즉 부모의 공격적 행동에 많이 노출되고 비행에 대해 수용적 태도를 가진 경우 비행친구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지만, 부모의 공격적 행동수준이 낮고 비행에 대해 부정적 태도를 가진 청소년들은 비행친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영향을 받지 않음을 의미한다. 비행에 대해 수용적인 태도를 가진 경우 비행친구가 비행의 기회를 제공하거나 비행의 모델이 되었을 때 기꺼이 비행을 시도할 것이다.

부모가 언어적 신체적 공격성을 많이 표출할수록 자녀들이 폭력비행을 시작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결과는 자녀들이 부모행동을 모델링을 통해 학습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부모의 폭력을 자주 목격할수록 자녀의 외현적 행동문제 및 공격성이 높

아지고 (Jenkins & Smith, 1990), 신체적 처벌을 받은 경험을 통해 공격적인 행동을 배우게 되고, 가정 밖에서 높은 수준의 분노와 충동을 표현한다(Miler & Chilamkurti, 1991)는 선행연구의 결과와 일관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공격적인 부모는 자녀의 공격적 행동에 대해 처벌을 하지 않거나 오히려 긍정적 반응을 보이며(Dishion, Spracklen, Andrews, & Patterson, 1996), 따라서 자녀들은 비행에 대해 긍정적 태도를 갖게 되고 이와 함께 비행 수준도 증가하게 된다 (Brendgen et al., 2002).

Plass와 Hotaling(1994)은 자녀의 부적응 행동에 세대간 전이가 나타남을 증명한 바 있다. 세대간 전이란 부모의 가출경험, 건전하지 못한 생활태도(도박, 외도) 등이 자녀의 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현상을 의미한다. 국내연구(예; 권윤아·김득성, 1999)에서도 세대간 전이현상이 청소년 비행의 주요 변인으로 작용하였다. 본 연구는 부모의 공격적, 폭력적 행동에 많이 노출된 청소년들은 비행친구가 폭력적 행동의 기회를 제공하거나 행동의 모델이 되었을 때 기꺼이 비행을 시도함으로써 부모의 공격성이 자녀의 비행으로 세대간 전이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다섯째, 비행친구와 교제한 기간이 길수록 현재의 비행수준은 높았다. 그러나 비행친구와 오랫동안 교제했다라도 현재 비행친구와 단절한 경우 이들의 비행수준은 지난 4년간 전혀 비행친구가 없었던 집단의 비행수준과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특히 오랫동안 비행친구가 없다가 최근에 비행친구가 생긴 청소년들의 비행수준이 지속적으로 비행친구가 있었지만 현재 비행친구와 단절된 청소년들보다 유의미하게 높았다는 결과는 비행친구의 지속효과보다는 최신효과가 더욱 크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다. 따라서 현재의 비행수준의 차이를 야기하는 요인으로 과거에 얼마나 오랜 기간 비행친구가 있었는가보다는 현재 비행친구가 있는지가 더욱 중요하며, 비행친구의 지속효과는 현재 비행친구가 있을 때에 한해서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비행친구 교제가 청소년의 이후 비행에 미치는 효과에 있어서 관계의 지속성보다는 최신성이 비행에 미치는 영향이 컸음을 증명한 Brendgen 등(2000)의 결과를 지지하는 것이다. 더 나아가 Brendgen 등(2000)의 연구에서 비행친구의 최신효과는 주로 가게에서 물건 훔치기와 같은 숨은 비행과 마약이나 약물사용 비행에서만 검증되었으나, 폭력비행을 다룬 본 연구에서도 같은 결과가 검증되었다는 점에서, 비행의 유형에 상관없이 비행친구의 지속효과보다는 최신효과가 더 강력한 것으로 보인다.

비행친구의 지속효과보다 최신효과가 강력하다는 결과는 정서적 유대감 (valence) 이 높은 모델, 예컨대 가장 최근의 친구에 의해 사회학습이 촉진된다는 주장(Bandura & Huston, 1961)을 지지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본 연구에서 비행친구가 없었지만 새로이 사귀기 시작한 집단이 비행친구가 있었으나 현재 단절된 집단보다 비행수준이 높았다는 점에서 더욱 명백해진다. 비행친구와 일반친구는 각기 비행과 규범적 행동을 주로 보여주고 강화하는 바(Dishion et al., 1996), 비행친구와 일반친구의 영향에 모두 노출된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이 비행과 규범적 행동 중에서 어떤 행동을 선택하는가는 최근에 누구와 어울렸는지에 달려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비록 오랜 기간 비행친구와 교제했음지라도 그들과의 단절을 통해, 더 나아가 일반 청소년들과의 교제를 통해 비행 중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의 결과는 청소년 비행의 예방 및 개입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공해 준다. 첫째, 비행친구의 선택이 이후 비행수준을 예측하는데 중요한 예언변인이라는 점에서 비행친구의 선택에 관여하는 요인을 파악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특히 청소년기의 친구관계에 변화가 많다는 점에서 비행친구 교제에 대한 개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이미 비행친구가 있다고 해서 모두가 친구의 영향을 받아 비행을 저지르는 것은 아님을 확인하였다. 청소년 비행의 근절을 위해서 비행친구의 접촉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 못지않게 비행친구의 영향에 대해 저항할 수 있는 개인의 심리적 및 환경적 개입도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아직 비행 경험이 없고 비행친구도 없지만 비행친구나 비행에 노출될 위험이 큰 청소년들을 조기에 선별할 수 있다면 예방적 차원에서 이들을 보호하고 지도하는 방안의 모색에 기초적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비행친구의 영향에 대한 조절효과가 있는 변인들을 확인함으로써 치료적 차원에서 비행 집단의 청소년들을 보호하고 지도하는 방안의 모색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해 줄 것이다.

셋째, 비행친구의 지속효과보다 최신효과가 비행에 더 큰 차이를 만들어 내고 있었다. 비록 비행친구를 사귀 기간이 길수록 비행할 가능성이 높아지지만, 현재 비행친구와 단절했다면 더 이상 비행친구의 지속효과는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오랜 기간의 비행친구와의 교제에도 불구하고 그들과의 단절은 청소년 비행의 근절에 매우 효과적인 개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는 청소년의 비행에 대한 비행친구의 영향을 보다 정확하게 이해하고, 청소년 비행을 예방하고 치료하기 위한 개입 프로그램에 실제적인 기초 자료를 제공해 줄 것이다. 이러한 연구의 의의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제한점을 안고 있다. 첫째, Brendgen 등 (2000)에 의하면 비행친구의 영향에 민감한 정도는 비행의 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다. 그런데 본 연구에서 비행경험 및 비행친구의 유, 무 구분을 위해 폭력비행만을 사용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가 다른 유형의 비행에서도 동일한지 추후 검증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 그리고 비행친구의 영향을 받는 과정에 성차가 있다는 연구(예: Galambo & Maggs, 1991)에 기초해 볼 때 본 연구의 결과에 유의미한 성차가 있는지도 추후 검증이 필요하다.

둘째, 비행친구가 있다고 보고한 청소년들간에 비행친구의 수 및 전체 친구에서 비행친구가 차지하는 비율, 비행친구와 친밀한 정도와 관계의 질(friendship quality) 등에 개인차가 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는 비행친구의 유무만을 고려하였다. Sutherland(1947)의 고전적 차별접촉이론에 의하면 교제의 빈도, 기간, 중요성(priority) 및 강도(intensity)가 중요한 요인이었다. 이를 기초로 하여 Warr(1993)는 친구와 함께 보내는 시간, 비행친구의 수, 친구의 중요성, 친구에 대한 헌신과 전념에 따라 비행친구의 영향을 받는 정도가 다를 것을 주장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가 비행친구와의 관계의 질을 고려하였을 때에도 반복되는지 후속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비행친구의 선택과 영향의 과정을 분리하기 위해 3단계 모델을 설정하였다. 1단계에서 비행경험 및 비행친구를 통제한 후 2단계에서 비행친구를 선택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3단계에서 비행친구의 영향을 받았는지 조사하였다. 그런데 각 단계마다 1년의 간격을 두고 추적 조사가 이루어짐으로써 비행친구와 교제를 시작하고 중단하는 역동적 친구망의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본 연구에서 확인한 비행경험 및 비행친구 교제의 변화 양상을 고려할 때 1년의 시간간격은 많은 변화가 일어나기 충분히 긴 시간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재측정 기간을 보다 짧게 설정한 후속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참 고 문 헌

- 권영옥 · 이정덕(1999). 부부갈등과 아동의 행동문제. *아동학회지*, 제20권 제1호, pp. 115-133.
- 권윤아 · 김득성(1999). 실업계 여고생의 가출 영향 변인들 및 가출유형 분석. *가정관리학회지*, 제17권 제1호, pp. 1-13.
- 이명숙 · 김영미(1993). 가족구조와 가족불화가 청소년의 부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제6권 제2호, pp. 201-216.
- Agnew, R. (1991). The interactive effects of peer variables on delinquency. *Criminology*, Vol. 29, pp. 47-72.
- Bandura, A. & Huston, A. C. (1961). Identification as a process of incidental learning. *Journal of Abnormal Social Psychology*, Vol. 63, pp. 311-318.
- Bauman, K. & Ennett, S. (1996). On the importance of peer influence for adolescent drug use: Commonly neglected considerations. *Addiction*, Vol. 91, pp. 185-198.
- Berndt, T. & Keefe, K. (1995). Friends' influence on adolescents' adjustment to school. *Child Development*, Vol. 66, pp. 1312-1329.
- Brendgen, M., Vitaro, F., & Bukowski, W. (1998). Affiliation with delinquent friends: Contributions of parents, self-esteem, delinquent behavior, and peer rejection. *Journal of Early Adolescence*, Vol. 18, pp. 244-265.
- Brendgen, M., Vitaro, F., & Bukowski, W. (2000). Stability and variability of adolescents' affiliation with delinquent friends: Predictors and consequences. *Social Development*, Vol. 9 No. 2, pp. 205-225.
- Brendgen, M., Vitaro, F., Tremblay, R., & Wanner, B. (2002). Parent and peer effects on delinquency-related violence and dating violence: A test of two mediational models. *Social Development*, Vol. 11 No. 2, pp. 225-244.
- Brown, B., Mounts, N., Lamborn, S., & Steinberg, L. (1993). Parenting practices and peer group affiliation in adolescence. *Child Development*, Vol. 64, pp. 467-482.

- Cairins, R., Cairns, B., Neckerman, H., Gest, S., & Gariepy, J. (1988). Peer networks and aggressive behavior: Social support or social rejection? *Developmental Psychology*, Vol. 24, pp. 815-823.
- Dishion, T., Patterson, G., Stoolmiller, M., & Skinner, M. (1991). Family, school, and behavioral antecedents to early adolescent involvement with antisocial peers. *Developmental Psychology*, Vol. 27 No. 1, pp. 172-180.
- Dishion, T., Spracklen, K., Andrews, D., & Patterson, G. (1996). Deviancy training in male adolescent friendships. *Behavior Therapy*, Vol. 27, pp. 373-390.
- Ennett, S. & Bauman, K. (1994). The contribution of influence and selection to adolescent peer group homogeneity: The case of adolescent cigarette smok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 67 NO. 4, pp. 653-663.
- Fergusson, D. & Horwood, L. (1999). Prospective childhood predictors of deviant peer affiliations in adolescence.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Vol. 40, pp. 581-592.
- Galambo, N. L., & Maggs, J. L. (1991). Out-of-school care of young adolescents and self-reported behavior. *Developmental Psychology*, Vol. 27, pp. 644-655.
- Jenkins, J. & Smith, M. (1990). Marital disharmony and children's behavioral problems. Aspects of a poor marriage that affect children adversely.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Vol. 32, pp. 793-810.
- Keenan, K., Loeber, R., Zhang, Q., Stouthamer-Loeber, M., & Van Kammen, W. (1995). The influence of deviant peers on the development of boys' disruptive and delinquent behavior: A temporal analysis.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Vol. 7, pp. 715-826.
- Leventhal, H. & Cleary, P. D. (1980). The smoking problem: A review of the research and theory in behavior risk modification. *Psychological Bulletin*, Vol. 88, pp. 370-408.
- Miler, J. & Chilamkurti, C. (1991). Physical child abuse perpetrator characteristics: A review of the literature.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Vol. 6, pp. 345-366.
- Patterson, G. R., DeBaryshe, B. D. & Ramsey, E. (1989). A developmental perspective on anti-social behavior. *American Psychologist*, Vol. 44, pp. 306-329.

- Petraitis, J., Flay, B. R., & Miller, T. (1995). Reviewing theories of adolescent substance use: Organizing pieces in the puzzle. *Psychological Bulletin*, Vol. 117, pp. 67-86.
- Plass, P. S. & Hotaling, G. T. (1994). The intergenerational transmission of running away: Childhood experience of the parents of runaway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Vol. 24 NO. 3, pp. 335-348.
- Reiss, A. (1988). Co-offending and criminal career. In M. Tonry & N. Morris(Eds.), *Crime and Justice*. Chicago: Univ. of Chicago.
- Snyder, J., Dishion, T., & Patterson, G. (1986). Determinants and consequences of associating with deviant peers. *Journal of Early Adolescence*, Vol. 6, pp. 29-43.
- Sutherland, E. (1947). *Criminology*. Philadelphia: Lippincott.
- Thornberry, T. P. (1987). Toward an interactional theory of delinquency. *Criminology*, Vol. 25, pp. 863-892.
- Thornberry, T., Krohn, M., Lizotte, A., & Chard-Wierschem, D. (1993). The role of juvenile gangs in facilitating delinquent behavior. *Journal of Research in Crime and Delinquency*, Vol. 30, pp. 55-87.
- Urberg, K., Degirmencioglu, S., & Pilgrim, C. (1997). Close friend and group influence on adolescent cigarette smoking and alcohol use. *Developmental Psychology*, Vol. 33, pp. 934-944.
- Urberg, K., Luo, Q., Pilgrim, C., & Degirmencioglu, S. (2003). A two-stage model of peer influence in adolescent substance use: individual and relationship-specific differences in susceptibility to influence. *Addictive Behaviors*, Vol. 28 No. 7, pp. 1243-1256.
- Vitaro, F., Brendgen, M., & Tremblay, R. (2000). Influence of deviant friends on delinquency: searching for moderator variables.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Vol. 28, pp. 313-325.
- Vitaro, F., Tremblay, R., Kerr, M., Pagani, L., & Bukowski, W. (1997). Disruptiveness, friends' characteristics, and delinquency: A test of two competing models of development. *Child Development*, Vol. 68, pp. 676-689.
- Warr, M. (1993). Age, peers, and delinquency. *Criminology*, Vol. 31, pp. 17-40.

ABSTRACT

Longitudinal Patterns of Adolescents' Affiliation with Delinquent Peers

Lee, Eun-Ju*

This study was to examine how the longitudinal patterns of affiliation with delinquent peers would be associated with subsequent delinquent behaviors. Data gathered from eighth graders, followed for a period of 4 years, from the Korean Youth Panel Study was analyzed, and the results indicated that some adolescents remain non-delinquent despite the presence of delinquent friends. High self-perception as a delinquent, positive attitudes toward delinquency, insufficient parental control, and frequent exposure to parental aggressive behaviors all play a unique role in adolescents' selection of delinquent friends. However, those with little exposure to parental aggressive behaviors and with negative attitudes toward violence proved to be resilient to the influence of delinquent friends. The influence of delinquent peers on adolescents' level of subsequent delinquent behavior depends mainly on the proximity in time rather than the duration of exposure to delinquent friends.

Key Words : delinquency, delinquent peers, proximity in time, duration

투고일 : 12월 13일, 심사일 : 2월 5일, 심사완료일 : 2월 20일

* Halla University

